

끝내 뿌리칠 수 없는 책읽기의 매혹

독서를 '업'으로 삼은 이들의 고백

독서는 매혹적인 삶의 경험이지만 때로는 곤혹스러운 짐일 때도 있다. 생존을 위해 책을 읽어야 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렇다. 그들은 책읽기에서 벗어나길 꿈꿀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책읽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책읽기의 즐거움보다 괴로움에 시달리는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저주받은 걸작 발굴하는 즐거움

박왕근 | 수학교육벤처 e매소피아 대표

대학시절 명동과 종로바닥을 돌아다닐 때면 늘 '부루의 뜨락'이라는 음반 가게와 '코아아트홀'을 거쳐 종로서적을 마지막 종착지로 쏘다니곤 했다. 그리고 이 코스를 완주할 즈음이면 한 손엔 음반꾸러미가, 다른 한 손에는 철학책과 천권도 채 팔리지 않는 《아트록 매거진》 등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밤새 음악을 들으며 책과 잡지를 뒤적이던 그 시절의 추억은 지금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특권이 돼버렸다.

서점에 가면 항상 외면하는 곳이 있다. 베스트셀러 코너다. 그곳엔 포장된 상품만이 존재할 뿐 나의 주된 관심은 숨어 있는 책, 이른바 '저주받은 걸작'을 발굴해내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발굴해낸 책들은 내 모든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남들이 모르는 비전이라도 전수받은 것 같은 즐거움. 이것이 이 나라에 해결과 칸트전집이 있어야 하는 이유며, 입시자가 아니면 '찬밥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나와 같은 숨은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정을 꾸리고 출판관련 벤처기업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포장된 상품으로 책을 출간하는 입장에 서고 보니 혼자 조용히 서점을 다니며 '저주받은 걸작'을 발굴해내던 즐거움은 반감됐다. 책의 유통구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됐으며 책을 읽더라도 내용보다는 디자인과 폰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프로로서의 비극이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어딘가에 있을 '저주받은 걸작' 컬렉터를 위해서 수험 책을 기획하고, 상상하는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으니 섭섭하지만은 않다.

이제 디지털은 현재이자 미래며 책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추억이 됐다. 내가 꿈꾸는 방에는 벵 앤 울프슨 오디오와 PDP, 22인치 대형 LCD 모니터에 DVD 멀티미디어 전자북이 영화처럼 지나간다. 또 그 옆방에는 오래된 매킨토시 진공관 오디오와 빛바랜 사진들, 아무도 안 보았음직한 책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책 읽기의 고통 위로하는 책 읽기의 즐거움

김지영 | 《한국일보》 문화과학부 기자

책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느낀 것은 대학 생활이 자리를 잡았을 무렵이다. 노을은 오래 전부터 드리워져 있었겠지만, 교과서와 참고서로 입시 준비를 했던 학생이 종이의 위기를 감지하기란 어려웠던 일이다. 물론 대학에서도 종이 교재로 공부하긴 했지만 아래아 한글이나 MS 워드 프로그램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2, 3년쯤 지나자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는 세상이 왔다. 시대의 키워드가 '속도'인 세상이다.

책을 읽으려면 시간을 들여야 하고, 글자에 집중해야 한다.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문맥을 따라잡을 수 없다. 빠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이토록 절실한 시대인데, 방금 본 문장을 이해 못해 다시 읽는다는 것은 얼마나 뒤쳐지는 일인지.

책을 읽는 것을 업으로 삼는 순간 어깨는 무거워진다. 취미도 의무가 되면 괴롭다는 시쳇말이 기막힌 진리임을 깨닫는 게 하나의 짐. 매일 책상을 찾아오는 신간이 반갑지 않고, 장편이 아닌 단편 소설집을 내거나 그나마 좀 덜 두터운 책을 쓴 작가가 고맙다. 어떤 기자는 주중 어느 하루를 글자안 읽는 날로 정했다던가. 여기에도 동시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까지 더해져 책 읽기는 고통스러워진다.

그때 이런 생각들이 함께 한다. "세계가 지금보다 5세기 가량 더 젊었을 때, 삶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지금과 현저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호이징가의 《중세의 가을》(최홍숙, 문학과지성사) 첫 구절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오래오래 읽어야겠다고 다짐했던 것. 김승옥의 《무진기행》에서처럼 한번만, 마지막으로 한번만,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고, 몇 번이나 한번만을 되뇌이게 되는 것.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수년 전 무작정 외었던 플라타너스의 속삭임이 이제는 진정으로 고개를 떨구게 하는 꾸밈음이 된 것을. 모자란 독서지만 마음 한켠에 쌓아 놓았던 글자들이 문득 솟아올라 내 정신의 키를 조금씩 키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두어달 전 인터뷰한 한 평론가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절실한 욕구가 남아 있는 한 문학은 생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예전에 만난 문자들이 어느 날 삶을 움직이고 의미를 부여할 때 괴로운 책 읽기를 위로하는 책 읽기를 발견한다. 그래서 책읽기는 즐거움이 된다. 평론가의 말대로 풍요로운 삶에 대한 절실한 욕구가 남아 있는 한.●

손 뻗을 때 도와주는 친구 같은 책들

박명순 | 영풍문고 외국어부 대리

나에게 책은 유일한 벗이었다. 마음 울적한 날엔 시집을 읊으며 감상에 젖어보고 이런저런 일이 뒤엉켜 머리가 복잡할 적엔 만화책이나 월간지를 뒤적어본다. 어디 그뿐인가. 맛난 것이 먹고 싶을 땐 요리책을,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땐 여행정보지를, 몸이 아플 땐 건강도서를 읽었다.

13년 전 서점인으로 입문했을 때 나는 누구도 부럽지 않을 벅찬 감격을 느꼈다. 세상 어느 누가 이만한 규모의 서재를 갖고 있겠는가. 필요한 책을 자유롭게 뽑아볼 수 있고 책제목만 알아도 모든 지식을 섭렵한 듯 기뻐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현실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신간의 제목 외우기도 바빴으며, 저자명과 간단한 내용과약조차 힘든 작업이었다.

지금은 교환 교수로 미국에 계신 한 교수님이 생각난다. 외국어 코너에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였다. 자주 오시는 고객 가운데 한 분이 하루는 책(TOEFL) 내용이 잘못됐다고 환불을 요구해왔다. 책제목이야 직업이니 당연히 알고 있지만 내용까지야 어떻게 알겠는가?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니 출판사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고 하니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책방에서 책을 파냐”며 핀잔이 날아왔다. 때론 당돌해지기도 하는 내가 울컥했다. 그 책을 다 공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물었다. 교수님은 “석달에서 여섯달이 걸린다”고 하셨고 난 바로 반론을 제기했다.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석달이 걸린다면 영문학 전공자도 아닌 제가 이 수십 종의 책을 다 꿰고 있으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라고. 일순간 교수님은 할 말을 잃은 듯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내 얼굴을 쳐다보며 “아가씨가 이겼소!”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 후론 나의 제1호 단골고객이 돼 조언도 아낌없이 해준 분이다.

책과 가까이하는 사람들치고 악한 사람이 없다더니 그 말이 맞는 듯 싶다. 나는 앞서 책은 나의 벗이라 했다. 편식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책을 읽기에 항상 주위에 여러 친구를 둔 것과 같다. 물론 습관적이긴 하지만, 다방면

의 폭넓은 독서는 끊임없는 자기 모색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만의 색깔에 맞는 길동무를 찾을 것이며 그 땐 길이 트일 것이다.●

나를 사로잡은 예술책의 매혹

이승우 | 한길사 기획실 차장

책을 기획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다. 두려움과 설렘은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3년 전부터 한길아트에서 미술, 건축 등 예술분야의 책을 새롭게 기획하기 시작했는데, 인문학 관련 책 기획과는 또 다른 책의 세계로 나를 인도한다.

나는 요즘 매일 <아마존>과 <반즈앤노블>, <bol.com>을 2시간 이상 아픈 눈을 비비며 여행한다. 매달 서양미술 관련 외서를 사는 것만 해도 20만원엔 족히 넘는다. 물론 사는 책을 모두 완벽해가면서 읽어낼 능력과 시간 여유는 없다. 책이 도착한 순간 우선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온전히 시간을 내 음미해가면서, 모르는 것은 사전도 찾아가면서 읽어야 좋겠지만 좀처럼 그런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책을 여는 순간 그런 아쉬움은 곧 희열로 바뀐다. 책의 장정부부터 본문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등 기본적인 편집체제에 푹 빠지게 되는 것도 미술책에서 누릴 수 있는 특유의 매력이다. 일반적인 교양서들과는 달리 미술책은 다양한 편집과 장정을 실험하는데, 나라에 따라 출판사에 따라 그 특징이 다 다르다. 요즘 특히 관심있게 눈여겨보는 책은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미술책들이다.

이렇게 서양미술책을 뒤적거려다 보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나의 미술지식은 이제 어느 정도 서양 미술의 흐름을 알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브뤼겔, 히에로니무스 보스, 카라바조,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그림을 좋아하게 된 것도 이런 감상의 축적이 가져온 결과다. 두려움은 잠시다. 서양미술책을 들여다보는 것은 더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여행임에 틀림없다.●

1991년부터 쌓아 온 한국프리랜서그룹의
노하우는 「부끄럽지 않은 품질」입니다.

편집 디자인(사보, 사사, 홍보물, 교재 등) ● 자서전, 회고록집필 ● 교정 · 교열 · 운문
● 사사(社史)집필제작 ● 취재대행 ● DB자료입력 ● 사보제작 ● 번역

Since 1991-----

(주)한국프리랜서그룹

※ 각 분야 전문가 모집(홈페이지 접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1-11(한서빌딩1105호)
Tel:(02)784-4447 Fax:(02)784-4404
E-mail: kfb@koreafreelancer.com
www.efreelancer.co.kr